

미분양 넘치지만 전세는 '별따기'

광주 남구 매매가 대비 전세값 전국 최고

지난해 금융권 전세자금 대출 크게 늘어

미분양 주택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전셋집 구하기는 날로 어려워지는 등 최근 광주·전남의 주택시장이 양극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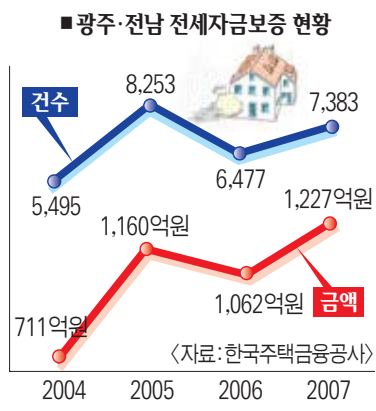
특히 광주는 지난해 수요가 몰린 남구의 전세값이 크게 오른 데다 매매가에 대한 전세값의 비중이 전국 최고치를 기록할 만큼 '전세 강세' 현상이 두드러지면서 전세자금 대출도 매년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주택금융공사가 광주·전남의 서민 전세자금 대출에 보증을 서준 금액은 총 1천227억8천4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1년 전인 2006년(1천62억1천900만원)에 비해 15.6%(165억6천500만원) 늘어난 것으로, 대출 건수도 1년새 14%(906건) 증가했다.

이처럼 전세 대출이 늘어난 것은 전셋값 상승 여파로 전세자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 데다 신규 아파트의 고가 추세 등으로 인해 '내집 마련'을 미루는 서민들이 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광주의 경우 주택시장 거래 침체와 미분양 급증 등의 여파로 집값이 '제자리'에 멈춰선 가운데서도 전셋값은 남구와 서구 등을 중심으로 꾸준히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국민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의 집값은 1년간 0.1% 떨어졌다. 남구의 집값만 2.0% 올랐을 뿐, 광산구와 북구는 각각 1.7%, 0.3% 떨어지면서 전체 집값은 하락세를 나타냈다.

반면 전셋집은 남구와 서구 등 일

부 인기 지역을 중심으로 가격이 크게 올랐다.

특히 남구는 봉선동과 진월동 등의 전세난이 커지면서 1년간 5.4%나 뛰었다.

5천만원짜리 전셋집의 경우라면 1년새 270만원이나 오른 것이다. 서구도 상무지구와 중앙지구 등을 중심으로 전셋값이 1.7% 올랐다.

여기에 광주는 전통적으로 '내집 마련'보다 전셋집을 선호하는 현상이 강한 것도 전셋값 강세에 한 몫을 하고 있다.

지난해 말 현재 광주 아파트의 매매가 대비 전세가의 비중은 73.4%에 달한다. 이는 전국 평균(54.0%)을 물론, 6대 광역시 평균(63.0%)을 크게 웃도는 것으로, 타 지역에 비해 전셋집의 인기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최경희기자 choice@kwangju.co.kr



기아 '호주오픈 테니스'

홍보효과 5억弗

기아차는 올해 호주오픈 테니스 대회 후원을 통해 5억3천만원 상당의 미디어 홍보 효과를 거뒀다고 29일 밝혔다.

기아차는 지난 14일부터 27일까지 호주 멜버른 파크에서 열린 호주오픈의 메이저 스폰서로 경기장 안팎의 네트와 펜스에 자사 로고와 회사명을 새겨 넣었다.

한편 기아차는 대회기간인 지난 26일(현지시간) 호주 현지에서 정외선 사장과 호주오픈 조직위원회 위원장 제프 폴라드(Geoff Pollard)가 참석한 가운데 대회 후원을 2013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이종태기자 jitlee@

'설맞이 우수 농특산물장터'

농협전남본부, KT 광주센터

농협전남지역본부(본부장 이덕수)는 설을 앞두고 전남지역 농산물 판매확대를 통해 농업인의 소득을 증대하고 도시민의 가계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30일부터 2월1일까지 동구 서석동 KT 광주정보통신센터 정문앞에서 '고향사랑 설맞이 우수 농·특산물 장터'를 연다.

이번 장터에서는 배·사과·단감·메론 등 신선하고 안전한 고품질 농산물을 중간마진 없이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다. 특히 아침마루·청미래 등 브랜드로 전남농협 연합사업단에서 생산 출하하고 있는 전남 명품농산물 등도 산지가격으로 전시·판매할 예정이다. 또 전남관내 농협판매장에서는 지난 25일부터 '설맞이 우리 농축산물 특판행사'를 통해 과일, 채소류, 계수용품 등 농·특산물을 시중가격의 10~2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고 있으며, 생필품은 5~20%, 가공 선물 세트는 10~20%가량 할인된 가격에 판매한다. 농협 관계자는 "행사가 기간 동안 농협 계통판매장을 대상으로 원산지 미표시, 유통기한 경과, 허위 표시, 수입농산물 취급여부 등을 특별점검해 농산물유통의 투명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종태기자 jitlee@kwangju.co.kr

지역 건설사 잇따라 문닫아

작년 광주·전남 33개 업체 부도

아파트 미분양 등 자금난 못이겨

지난해 광주·전남지역을 비롯한 전 반적인 건설경기가 크게 위축되면서 주택건설업체 및 전문건설업체의 부도가 잇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광주·전남의 경우 지방 주택 경기 침체와 미분양주택 급증 등의 여

파로 지난해 4·4분기에만 13개 업체가 경영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문을 닫았다.

29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전남의 부도업체는 일반건설업체 19개, 전문건설업체 14개 등 총 33

개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전국의 부도업체(314곳)의 10.5% 수준으로, 지역 내 건설업체의 자금압박이 타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컸음을 의미한다.

광주·전남은 또 전체 부도업체 가운데 13곳이 4·4분기에 문을 닫았다. 이처럼 부도업체가 한 분기에 몰린 것은 하반기로 갈수록 미분양 적체 등으로 인한 업체의 자금난이 커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 광주·전남은 지난해 말 지역 중견업체인 거림건설과 대동건설이 잇따라 부도처리돼 지역 전문건설업체와 금융권 등에 적잖은 충격을 줬다.

이 같은 상황은 전국의 경우도 비슷하다. 지난해 전국의 부도 건설업체는 일반건설업체 113개, 전문건설업체 210개 등 총 314곳에 달한다.

이 가운데 4·4분기에 부도처리된 업체는 모두 113곳에 이른다. 특히 분양가상한제 시행 이후인 11월에는 41곳의 업체가 문을 닫을 만큼 업계의 자금경색이 커지고 있다.

최경희기자 choice@kwangju.co.kr

올해 국민임대주택 7만가구 공급

건설교통부는 올해 광주 수완지구 등 전국에서 6만9천182가구의 국민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올해 공급 물량은 대부분 지난 2003~2004년 사업승인을 받은 것으로, 지방에서는 광주 수완지구(3천653가구), 대구 율하(3천813가구) 등에서 3만7천가구가 공급된다.

수도권에서는 용인 흥덕(2천503가구), 광명 소하(2천665가구), 양주 고읍(2천400가구), 화성 동탄(2천342가구) 등 26개 지역에서 3만2천가구가 공급된다.

임대조건은 인근 전세가의 55~

83%선에서 책정되며, 무주택자로서 가구당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 임주를 신청할 수 있다.

전용면적 50㎡ 이상인 경우에는 청약약자측 가입자여야 한다.

올해 공급되는 국민임대주택 공급 물량은 연간 공급량으로는 최고치이다.

연도별 공급량은 ▲2003년(2만4천142가구) ▲2004년(2만8천916가구) ▲2005년(2만1천415가구) ▲2006년(3만702가구) ▲2007년(5만7천400가구) 등이었다.

최경희기자 choice@kwangju.co.kr



아시아나, 고객만족 1위

아시아나항공은 29일 한국생산성본부 주관하는 국가고객만족도(NCSI) 조사 10주년 기념식에서 국내 항공부문 10년 연속 1위 기업으로 대상을 수상했다. 아시아나항공 운영부 부서장(오른쪽에서 두번째)이 삼성동 그랜드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열린 'NCSI 10주년 기념식'에서 NCSI 대상을 수상한 후 배성기 한국생산성본부 회장(왼쪽에서 두번째)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세부항목별로 부추, 고사리, 도라지, 대추 등 채소·임산물의 재래시장 가격은 2만3천630원으로 대형마트는 4만210원보다 41.2%나 싼다.

조기, 동태포, 가지미 등은 재래시장이 1만4천430원, 대형마트는 1만8천540원으로 재래시장이 36.3% 저렴했다.

또한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육류도 재래시장은 6만730원, 대형마트는 8만7천480원으로 재래시장에서 30.6% 싸게 살 수 있다. 사과, 배, 단감 등 과실류도 재래시장이 2만240원으로 대형마트의 2만7천100에 비해 25.3% 저렴했다.

/연합뉴스

무안 일로 시금치 출하

한 겨울철 입맛을 돋우는 시금치가 무안군 일로를 융산리 한 농가에서 수확되고 있다. 이 시금치는 16kg 1박스당 1만4천원에 출하되고 있다.

/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설 계수용품 재래시장이 더 싸다

전국 9곳 조사... 대형 마트보다 30% ↓

올해 설에 재래시장에서 차례상을 준비하면 대형마트보다 30% 가량 싸게 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9일 중소기업청 산하 시장경영지원센터가 전국의 재래시장과 대형마트 각각 9곳에서 설 차례상에 올려질 계수용품의 값을 조사했다. 설 차례상을 준비하는 비용(4인 기준)이 재래시장은 평균 14만600원으로, 대형마트 평균 20만1천990원보다 30.4% 저렴했다.

설 차례상 비용이 재래시장의 경우 지난해보다 10.4% 줄어든 반면 대형마트는 6.6% 늘어나 비용 격차가 더 벌어졌다.

세부항목별로 부추, 고사리, 도라지, 대추 등 채소·임산물의 재래시장 가격은 2만3천630원으로 대형마트는 4만210원보다 41.2%나 싼다.

조기, 동태포, 가지미 등은 재래시장이 1만4천430원, 대형마트는 1만8천540원으로 재래시장이 36.3% 저렴했다.

또한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육류도 재래시장은 6만730원, 대형마트는 8만7천480원으로 재래시장에서 30.6% 싸게 살 수 있다. 사과, 배, 단감 등 과실류도 재래시장이 2만240원으로 대형마트의 2만7천100에 비해 25.3% 저렴했다.

/연합뉴스

光州日報 인터넷 신문
www.kwangju.co.kr

광주·전남의 겨울철 건강을 위한 최고의 선택! 마시는 豚태반. 중외제약. 052-526-7706

난방기와 에어컨을 1대로... 난방비 1/3로 줄었다! TEMPIA 252-2900 080-252-7117